

전북교육청, 열화상 카메라 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에 151곳 설치... 예비비로 2차 지원도 계획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개학 이후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해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51개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3곳, 단설유치원 4곳, 초등학교 67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45곳 등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기준은 학생수 130명 이상인 특수학교, 원아수 150명 이상인 유치원, 초·중·고교는 학생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학생수 1,500명 이상인 초등학교와 학생수 1,000명 이상인 중학교는 각각 2대를 지원하면서 총 설치수량은 154대다.

이와 더불어 보다 많은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교직원의 건강지원 및 업무 경감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자체 예비비를 투입할

기로 했다. 7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수 300명 이상인 120여 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 관계자는 "단체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가장 위험한 상황과 처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원로체육인들의 모임인 전북체육육성협의회(구 전북체육동우회, 회장 유병용)는 민간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체육회와의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체육회, 찾아가는 소통 행정

임직원, 원로체육인들 만나 목소리 경청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첫 일선으로 정강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도내 원로체육인들을 만났다.

원로체육인들의 모임인 전북체육육성협의회(구 전북체육동우회, 회장 유병용)는 민간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체육회와의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전문체육-생활체육 동반성장 ▲종목단체-시군 상생 발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주문했다.

유병용 회장은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체육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체육회, 전북 체육 위상을 높이는 체육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체육 발전을 이끌어 온 원로체육인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듣고, 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의 체육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누비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취업현장 방문격려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을 타개하는 전략으로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2019년학도 졸업한 21개 학과 졸업생 대상 지도교수 중심으로 전수 조사해 중도 퇴사한 학생들에게는 1:1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지역 내 사업장과 연계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생 취업시장은 더욱 팍팍 얼어붙었다.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2020년 신규 채용규모를 대폭 줄였고, 많은 중소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홍순직 총장과 취업지원처장 등은 학생들이 퇴사하지 않고 소중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생들이 취업에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홍순직총장(좌에서 세 번째), 박창렬 취업지원처장(좌에서 첫 번째) 등이 카페에 바리스타로 취업한 학생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있다.

전북대, 재택수업 1주일 연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비대면 수업(재택수업)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긴급 처·국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대학생활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던 학생들의 등교는 4월 6일로 조정됐고, 이에 맞춰 대학 생활관과 도서관 등의 운영도 1주일 늦춰질 예정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예체능 관련 학과는 보강을 통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사범대 교실실습은 다음달 중순경 나 갈 것이다"면서 "비대면 수업 첫날 서버가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미얀마 다곤대학서 부지 무상 제공

2만7000여 평 10년간 사용... 유용식품 연구 '탄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미얀마 다곤대학으로부터 유용식품을 연구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받아 연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 전북대 국제협력선도사업단(단장 방극수 교수)에 따르면 이날 초 다곤대학과 교내 22에이커(2만7천여 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전북대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전북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기후가 아열대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유용식품이나 국내 약용작물 등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전북대는 올해 초 다곤대학에 컴퓨터 60여 대와 이학계열 교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600여 권의 전공서적을 기증, 지난 1월 14일 이귀재 부총장이 다곤대학을 방문해 관련 학과 전공도사실을 개관하는 등 독특한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이 대학 식물학과에 전북대가 설치한 것과 유사한 스마트 강의실 2곳을 만들어 기부하기도 했다. 이는 미얀마 대학 최초의 스마트 강의실로, 전북대는 이곳을 세종대왕을 지칭하는 '세종홀'과 전북대를 상징하는 '건지홀'로 각각 명명해 한국과 전북대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 간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대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년 동안 16억 원을 지원받아 한약자원학과 방극수 교수가 중심이 돼 미얀마 유용식품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 기술보급 사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년 여 동안 전북대는 다곤대학과 협력해 이 대학에 유용식품센터를 설치해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기술과 산업화 지원을 이어나가면서 이곳이 유용식품자원의 증식과 활용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그림책 원화전... 내달 1일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오진)은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상상 마음, 상상 생각'을 주제로 그림책 원화전을 개최하고 밝혔다.

이번 원화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회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채승연, 이순욱 작가의 원화 40점과 스케치작업, 집필도구, 드로잉 61점의 다양한 그림책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작가 강연으로는 이순욱 작가와의 만남이 4월 18일, 채승연 작가와의 만남이 5월 2일 14시에 각각 운영된다. 또한 그림책에 영상, 클래식 음악, 샌드아트와 같은 다양한 장치들을 접목한 그림책 문화예술공연은 4월 25일 14시에 열린다. 한편, 채승연 작가는 2019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에서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미(신인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순욱 작가는 2017~2018 볼로냐 국제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상

을 받았다.

개별관람은 전시간 중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그림책 읽기 및 체험코너도 참여 할 수 있다. 특히 오전 10시, 11시, 14시, 16시에 관람하면 도슨트의 그림책 해설 및 전시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오진 관장은 "그림책 원화전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예술적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서관이 독서 문화의 장이 돼 지역사회의 책 읽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관 누리집(www.jbje.go.kr/je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 캠페인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